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주매일 익산시 무암로 895신동동 344-21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종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8년 1월 8일 월요일 (음 11월 22일) 제1965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독일형 강소기업 육성 집중 투자

전주시, 133억여원 예산 투입
맞춤형 마케팅 지원 등 전개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올 한해에도 건승을 기원합니다”

지난 5일 정을 아크로웨딩타운에서 열린 전북서남권상공회의소(정을, 김재, 고창, 부안) 신년 인사회에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해 이선홍 전북상공회의소회장, 김적우 서남권상공회의소 회장, 김용만 정읍부시장 등 참석자들이 떡케익을 자르고 있다.

전주시는 중소기업 육성을 독일형 강소기업으로 키우기 위해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지난 5일 시는 올해 총 133억여원의 기업지원 예산을 투입해 판로확보와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전주지역 중소기업에 돕고 각종 인프라를 확충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사업은 △전주형 성장사다리 강소기업 육성사업 △전주시 글로벌 스타트업 발굴·육성 △중소기업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저소득 밀집지구 지식산업센터 건립 △전주 신산업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건립 △전주 제1산업단지 재생사업 등이다.

먼저 총 3억원을 투입해 소기업과 중소기업에게 꼭 필요한 기술혁신 R&D역량강화 시제품제작, 생산기반 공정개선, 디자인개발 및 마케팅, 기업 경영비즈니스, 기업직무 역량강화, 표준화 인증 등을 지원해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는 전주형 성장사다리 강소기업 육성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지난해 참여한 기업들의 전체 수출액이 11억4000만원, 매출이 30.4% 증가했으며 고용인원도 14.1% 증가하는 등 기업 성장에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독일형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키워내기 위해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수출 적극 지원

하는 글로벌스타기업 발굴·육성사업과 중소기업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에 각각 5억원과 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지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우수한 중소기업들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각 분야별 세계시장을 지배하는 우량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생태계 조성과 창업기업에 대한 거점공간을 마련해주기 위해 팔복동 전주첨단벤처단지와 중노송동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내에 각각 지하 1층~지상 6층

규모의 임대형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기로 했다.

전주첨단벤처단지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올해 47억5000만원 등 오는 2019년까지 총 268억원이 투입되며 총 70여개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과 지원·복지시설 등을 갖춘다.

전주 신산업융복합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올해 34억8000만원 등 오는 2020년까지 총 243억원이 투입되며 신성장 산업분야 제조업체와 지식산업 관련 업체, 3D프린팅 등 정보통신산업 기업 60개사가 입주할 수 있는 공간과 창업 카페, 3D프린팅지원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동시에 낙후된 전주 제1산업단지에 대해서는 도로와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기업환경과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재생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작지만 강한 기업으로 키워내는 일이 중요하다”며 “경쟁력 있는 기술과 제품을 보유한 유망기업에는 판로확보와 해외진출 기회를 제공, 기업활동 공간을 확충, 재생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채규남 기자

社 告

참신한 인재를 찾습니다

전북 언론의 미래를 열고자 하는 전주매일신문사가 열정과 패기가 넘치는 참신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구 분	모집분야	자 격 조 건
경력기자 0명 신입기자 0명	취재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남·여·나이제한 없음

- ▲ 접수기간 2018년 1월 31일까지
- ▲ 제출서류 이력서 1통, 자기소개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 ▲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 접 수 처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서노송동) 문의 063-288-9700(본사 총무팀)

전주매일



백순기 이철수 김기평 민선식 황권주



양도식 김태수 장병호 권혁신 김형조

전주시 3~4급 인사 단행 백순기 전 완산구청장 등 10명

전주시가 1월 8일자 3~4급 인사 발령을 단행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인사 대상자는 승진 포함 10명이며 백순기 전 완산구청장, 양도식 사회적경제지원단장, 김형조 전 기획조정국 총무과장, 황권주 전 기획

예산과장 등이 승진했으며, 나머지 전보 대상자들 중 이철수 기획조정 국장이 8일부터 완산구청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이외에도 박선이 덕진구청장과 안석 의회사무국장은 공로연수를 떠나게 된다. /채규남 기자

고준희 사망 직전 폭행 있었다

경찰, 아버지·내연녀·내연녀 어머니 등 검찰 송치
작년 4월 완주 어느 아파트에서 폭행·시신 유기

군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준희(당시 5세)양이 아버지와 내연녀의 폭행과 학대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덕진경찰서는 지난 6일 준희양의 아버지 고모(37·구속)씨와 고씨의 내연녀 이모(36·구속)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사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어 이씨의 어머니 김모(62·구속)씨도 같은 날 사체유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고씨와 이씨는 지난해 4월25일 완주군 봉동읍의 한 아파트에서 준희양의 등을 발로 밟는 등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경찰은 이때 준희양의 갈비뼈 3개가 부러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다음날인 26일 준희양의 호흡이 불안정해지고 의식을 잃는 상황이 반복되자 이날 오전 병원에 데려가기 위해 고씨의 차에 태우는 과정에서 준희양이 사망하자 유기를 결심했다. 이에 곧장 김씨의 집이 있는 전주인후동으로 가 준희양 시신을 유기할

방법을 공모했다. 고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직장에 출근해 근무를 하고 돌아오는 태연함을 보이기도 했다. 고씨와 김씨는 이씨를 완주 집으로 돌려보낸 뒤 군산시 내초동의 한 야산으로 이통해 준희양의 시신을 묻었다. 고씨 등은 준희양의 시신을 유기한 이를 뒤 가쪽여행을 가 준희양이 살아있는 것처럼 꾸미기로 모의했다. 또 지난해 12월 8일 허위로 실종신고를 해 20여일 동안 수천명의 경찰인력을 허비하게 하고 경찰 수사를 방해했다.

고씨는 “준희에게 미안하다”면서도 “학대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또 고씨와 이씨는 준희양에 대한 폭행이 있었다고 시인하면서도 사망 직전 폭행은 상대방이 한 짓이라고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다. /이상민 기자

매일 INDEX
3면 - 정세균 국회의장 전북 방문

전북도, 국가안전대진단 시행 앞두고 사전준비 착수

전북도는 2018 국가안전대진단(2월5일~3월30일) 시행을 앞두고 8일 관계자 교육을 필두로 사전준비에 착수한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안전위험요소와 사고다발 분야에 대해 중점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 민간이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안전문화가 도민들에게 정착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민참여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진단기간 동안 민간에 합단·안전관리자문단·분야별 전문가 및 대학생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점검 기동반을 운영한다. 민간단체가 중심으로 안전문화를 홍보할 수 있도록 사전홍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안전신고 포상금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김진성 기자

扶來滿福-부안에 오면 복 받습니다.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군민이 행복한 자랑스런 부안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부안군 BUAN-GUN